

『토지』와 겁탈의 변검술*

이 경**

〈차례〉

1. 들어가기
2. 겁탈을 매개로 한 남성동맹
 - 2.1. 권력에 의한 겁탈과 남성간 회계
 - 2.2. 사랑에 의한 겁탈과 부자동맹
3. 제도화된 겁탈에 대응하는 협상과 부정의 전략
4. 사랑/겁탈을 심문하는 위반의 담론전략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서사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축적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겁탈모티프를 분석함으로써 겁탈의 가부장적 계보를 밝히고 이에 대한 여성인물들의 대응양식을 통해 여성의 주체적, 능동적 가능성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담론을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성애, 성매매, 성폭력을 동일선상에 위치지우는 연속선 개념과 비가렐로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27-A00389).

이 논문은 2012. 5. 3.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 주최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1) 변검술은 중국 쓰촨(四川)지방의 전통극에서 배우가 신속하게 얼굴분장을 바꾸는 마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토지』의 남녀관계가 대개 겁탈에 내재하는 남/녀의 권력관계의 변주에 해당된다는 의미로서 사용하였다.

의 겁탈의 계보학 등에 기대어 겁탈은 정상과 질서를 위협하는 예외적이고 일탈적 충동이 아니라 정상과 질서가 바탕해 있는 구조, 즉 가부장 권력, 제도, 젠더, 국가 등의 전 담론체계와 연동된 폭력임을 드러내었다. 소설의 남성인물들은 사랑과 겁탈을 분할하고 있지만, 여성을 동원하여 남성주체를 성장시키며 동성간의 연대 또한 공고히 하는 매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상통함을 밝혀내었다.

또한 새론 마커스와 김순-그래함의 담론전략을 원용하여 겁탈을 수용하는 여성인물의 대응양식을 해석함으로써 타자화와 피해자화로 작동하는 여성 통제 매커니즘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정조관념으로부터 일탈하는 여성인물들의 태도에 유의하여 죽음 혹은 의사죽음을 명하는 가부장제와 협상하거나 가부장제를 부정하는 주체화의 궤적을 탐색하였다. 욕망을 기입하고 스스로가 상황과 맥락을 구성하는 여성인물의 능동성에서 여성을 피해자화함으로써 스스로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남성지배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일으키는 반담론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겁탈, 강간 스크립트, 강간통념, 남성동맹, 반담론, 박경리, 토지

1. 들어가기

이 글은 『토지』에 나타난 겁탈모티프를 분석함으로써 겁탈²⁾이 가부장제가 발현하는 양상의 하나임을 밝히고 여성인물들의 태도를 통해 가부장제에 대응하는 반담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여기서 겁탈은 여성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위배되는 성관계로 가해/피해의 경우가 불분명한 경우까지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강간과 성폭행 등도 유사한 용어이나 이는 가해/피해가 비교적 명확한 법적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기에 이 글에서는 한정적인 경우에만 그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만 강간통념, 강간스크립트 등은 이미 통용되고 있는 용어 혹은 번역어이기에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프로이트도 침묵할 정도³⁾로 겁탈은 공론화되지 못한 주제이다. 겁탈의 역사는 아직 썩어지지 않았다는 비가렐로⁴⁾의 말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나온 지적이다. 겁탈의 역사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곧 근대적 주체의 탄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희생자들의 내적인 상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도덕적 수치요 사회적 모욕이었던 겁탈은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식된다. 개인의 육체를 침해함으로써 가장 비육체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이 범죄의 특수성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⁵⁾ 유사 이래 성폭행에 관한 법률은 있어 왔지만 그것의 실천이나 적용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뿐만 아니라 겁탈의 가시화와 공론화가 남/녀를 가해/피해, 강/약, 능동/수동, 침탈/허약한 내부공간 등의 분할 속에 배치한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로 남는다.

한국문단의 큰 소설이라는 지위에 합당하게 『토지』에 대한 연구사의 목록은 방대하지만 겁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소설의 초입에 제시되는 윤씨 부인의 겁탈에서부터 후반부에 드러나는 남희의 겁탈에 이르기까지 『토지』에서 겁탈 모티프는 적지 않게 반복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축적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정상과 질서의 사회를 위협하는 예외적인 폭력으로 치부되어 아예 배제되거나,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간통에 관한 연구⁶⁾를 제외한다면 남/녀관계에 관한 대개의 연구가 근대적 주체의 성립과 연관된 사랑, 가족관계 등에 국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⁷⁾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겁탈을 이성애, 성매매

3) 수잔 브라운밀러, 편집부 역,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1990, 12쪽.

4) 조르주 비가렐로, 이상해 역, 『강간의 역사』, 당대, 2002, 5쪽.

5) 비가렐로, 앞의 책, 9-16쪽.

6) 채희운, 『『토지』에 나타난 간통의 생태학』, 『현대문학』 1994.10.

7) 이상진, 『탕녀의 운명과 저항: 박경리의 『성녀와 마녀』에 나타난 성 담론 수정양상 읽기』, 『여성문학연구』 제17호, 2007; 방은주, 『박경리 장편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3; 김국희, 『박경리 『토지』의 여성인물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4; 최지선,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남성인물의 존재방식과 욕망 양상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청

등과 연결되는 구조적인 폭력이 아니라 예외적이고 비일상적인 음란범죄로 규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겁탈 자체가 공식적으로는 거론하기 곤란한 금기어라는 점 또한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겁탈이 비이성적 충동의 결과이거나 예외적인 폭력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겁탈은 정상과 질서를 위협하는 일탈적 범죄가 아니라 가부장제가 정상과 질서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폭력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가부장적 권력구조를 반영하는 매개이거나 혹은 그러한 권력구조가 작동하는 방식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이는 가부장제를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와 지배의 권리체계로 정의하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주장⁸⁾과도 상통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 성매매, 아름다운 성과 사랑은 모두 불평등한 성역할 제도의 연속선상에 존재한다.⁹⁾ 사전적 정의와는 달리 겁탈이 단순히 가해자/피해자라는 두 대립적 힘의 충돌로만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양상을 지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는 제도, 젠더, 몸, 권력, 시선 등 다양한 사회적, 구조적 관계와 의미화가 개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녀의 섹슈얼리티를 바라보는 이론적 접근들, 즉 성과학 패러다임과 사회구성론의 패러다임을 원용하여 겁탈이 자연화되는 과정을 천착하고자 한다. 남/녀의 섹슈얼리티를 동태/정태, 강한 성/약한 성, 섹슈얼/어섹슈얼, 충동/억제, 공격/수동, 표출/억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한 권력의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물학적 본능으로 간주하여¹⁰⁾

구노문, 2009; 정미숙, 『박경리 애정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유형과 특성연구』, 호서대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9; 정혜경,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의 변모과정 연구』,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7; 이진, 『『토지』의 가족서사 연구』, 목포대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9)

- 8)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05, 228쪽. 이 글은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론을 사랑, 성매매, 성폭력의 연속성 *continuum*을 지적하는 비판적 준거로서 원용하였을 뿐이며 이성에 자체를 부인하는 극단적인 대안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다.
- 9) 정희진, 앞의 책, 155쪽; 장필화, 『여성 체험의 공통성』, 『철학과현실』 제31호, 1996, 특히 185면, 189면 이하; 조세핀 도노번, 김익두·이월영 역, 『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3, 261-286쪽.

겁탈을 자연화하고 탈정치화한다.¹¹⁾ 이 점에서 겁탈은 권력이 성애화되는 가장 침예한 방식이다. 남성의 성을 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성의 성을 수동적, 무성적으로 규정하는 ‘상식적’ 예단은 권력문제를 은폐함으로써 겁탈이라는 실천을 추진하며 남성에게는 면죄부를, 여성에게는 오염을 덧씌우는 것으로 결과한다.

이러한 논의는 강간통념(rape myth)¹²⁾에서 말하는 피해자책임론과 연동된다. 위와 같은 불평등 구조에서 출발하는 한, 성폭력의 낙인은 여성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비가렐로에 의하면 겁탈은 강력범죄가 아니라 풍기문란의 범주에 속했으며 불법적인 상처이기 이전에 불법적인 쾌락이었다. 겁탈의 희생자가 느끼는 수치심은 자신의 오염이 타인의 눈에 드러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접촉에 의한 오염, 타락이라는 해묵은 주제를 불러온다. 겁탈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신체와 시선과 도덕의 복잡한 뒤엉킴이다. 바로 이 더럽혀졌다는 생각이 고소를 방해하고 희생자에게는 입을 다물게 하고 주변사람에게는 오히려 희생자를 비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여성에게 주체의 지위를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성폭력 은폐에 일조하는 것이다.¹³⁾

이처럼 겁탈은 하나의 반사회적 행위 혹은 범죄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여성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는 동시에 인격의 존엄성에 위해를 가한다. 여성에게는 겁탈의 피해자 혹은 정조를 상실한 일탈자로서 소외와 침묵

10) 그러나 동물세계의 짝짓기는 암컷의 발정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통제된다(브라운밀러, 앞의 책, 15쪽)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남성의 본능적인 공격성, 충동은 단지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의미부여한 해석일 뿐이다.

11) C. McKinnon, 『강간: 강요와 동의에 대하여』, 케티 콘보이·나디아 메디나·사라 스텐베리 편, 고정하 외 편역,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1.

12) 강간통념이란 “강간은 추잡하게 행동하거나 다른 도덕적 결함을 보여주는 여성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이지, 행동이 조신하고 도덕적인 여성에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모든 여성들이 누구나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다는 취약성을 덮어버리거나 혹은 그 가능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한다.(김애리·박정열, 『성역할 관련 태도가 강간통념 수용에 미치는 영향』, 『기본간호학회지』 제15권 제1호, 2008, 98쪽.

13) 비가렐로, 앞의 책, 41-51쪽.

만이 할당된다. 더럽힌 주체의 책임은 괄호친 채 더럽혀진 대상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요컨대 그것은 제반의 가부장적 억압이 집적된 또 다른 형태의 권력현상이다.

이상과 같은 겁탈의 발생구조 속에서의 피해자, 타자라는 배치에서 일탈하는 여성의 주체적 가능성을 천착하기 위하여 이 글은 마커스¹⁴⁾의 담론전략을 원용하였다. 겁탈의 가시화와 고발이라는 오늘날의 여성주의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녀를 강/약의 도식에 재코드화시키는 겁탈스크립트의 진술방식은 여성의 몸을 허약한 내부공간으로 고착시키고 여성을 희생자에 영속시키는 위험을 노정하기에 다른 담론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녀는 한 인간의 내부에 공존가능한 다중적, 다층적 여성 섹슈얼리티를 인정하고 이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삶의 방식들을 재해석하고 재규정할 것을 제안한다.¹⁵⁾

이 글은 이상에서 살펴본 겁탈의 테제들을 적용하여 『토지』의 겁탈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가부장제와 공모하는 겁탈의 발생구조를 살펴보고¹⁶⁾ 이에 대응하여 고발은커녕 거부조차 발화하지 못하는 작중인물의 입지

14) S. Marcus, "Fighting bodies, fighting words: A theory and politics of rape prevention," in: J. Butler and J. W. Scott, ed.,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New York: Routledge, 1992

15) Gibson-Graham, J. K.(2006), *The End of Capitalism (As We Knew It) (A Feminist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76-81 참조.

16) 담론분석의 방법론은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천착하는 주요한 수단이 언어라고 보면서(신진욱,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사회』 제89호, 2011) 언어의 분석을 통해 사회 세계를 형성하고 구성하며 그것을 나름의 가치정향에 따라 규정할 수 있는 도구를 찾고자 하는 방법이다.(다리우시 갈라신스키, 크리스 바커, 백선기 역 『문화연구와 담론분석(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이 연구는 이러한 준거틀을 이용하여 소설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겁탈의 양상들과 그에 대한 대응담론의 분석을 통해 남성지배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주체가 되고자 하는 텍스트의 무의식을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형태(N. Fairclough, *Language and Power*, 2/e, London: Longman., 2001)로 포착해내고자 한다.

속에서 주체화를 위한 가능성을 탐색한다. 겁탈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도덕적, 법적 우월성을 주장하고 그 지위의 역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겁탈로 강화되는 젠더의 위계 자체에 파열을 만들고 그의 해체를 도모하는 양상을 띠냄으로써 가부장제에 틈을 내는 여성주의적 반담론¹⁷⁾의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토지』의 여성인물들은 수동적 피해자의 위치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며, 공격적이고 강한 남성에게 의해 침범되고 강간당하는 나약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예측가능한 새로움과 생성의 행위주체로 자리매김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성의 겁탈을 제2장에서, 여성의 대응양식은 제3장, 제4장에서 각각 살펴본다.

2. 겁탈을 매개로 한 남성동맹

2.1. 권력에 의한 겁탈과 남성간 회계

겁탈에서부터 서사가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토지』에는 겁탈모티프가 빈번하게 제시된다. 우선, 권력과 힘에 의한 겁탈의 양상을 살펴 본다. 구한말의 양반에서부터 일제강점기의 친일귀족, 군인, 밀정 등으로 가해자의 신분은 바뀌어가지만 남성이 겁탈을 자행하는 주체라는 사실은 여일하다. 남성들은 여성을 피해자화, 타자화하는 가운데 동성간의 연대를 과시하며 또 공고히 한다.

여성에게 주체의 지위를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저항적 행동의 가능성을 원초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여성을 무력한 피해자로 고착시킨다.

바로 어제 시체에 염을 했을 때처럼 묶는다. 키 큰 수숫대에 가려진 밧고

17) 설리반, 『매춘을 다시 생각하기』, 칠라 불백, 이소영 역, 『행동하는 페미니즘 - 호주학 연구총서 2』 지구문화사 2000.

량은 병풍을 둘러놓은 듯 현장을 가려준다. 바람소리는 몸부림 소리를 막아 준다.<4-155>

평산은 함안댁을 쓰러뜨린다. (……) 송장같이 된 여자를 이리 뒤치고 저리 뒤치면서 다시 범하며 신음하는 평산은 공포에 몰린 구역질과도 같이 배설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2-350~1>

분명 그것은 육체를 통한 영혼의 도살이었다.<14-53>

소설에서 거듭 반복되는 겁탈은 남성에 의해 자행되고 다른 남성의 지원으로 단 한 번의 실패나 장애도 없이 실현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신분, 가족, 국적을 막론하고 남자가 여자를 겁탈하는 것은 ‘저지르기 쉬운 일’이며 여성인물에게는 무력한 피해자외의 어떤 정체성도 할당되지 않는다. 여성은 ‘노리개’ ‘심심풀이’ 군인의 사기를 북돋워주어야 하는 소모품 혹은 ‘가랑잎처럼 가벼운’ 피해자일 뿐이다. 시간(屍姦)문화¹⁸⁾라는 텔리의 말에 잘 요약되어 있듯, 여성인물의 무력함은 그녀들이 시체, 송장에 비유된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시체에 염을 했을 때처럼 묶는다’ 죽은 듯 축 늘어진’ 등의 비유는 그 사례이며, 이는 가장 무력한 존재를 대상으로 삼을 때 극대화되는 권력의 한 극단을 보여준다. 여성인물을 의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력의 양태는 부부 사이에도 예외가 아니다. 평산의 경우는 치수를 살해한 후의 공포와 불안을 이미 ‘송장과 같이’된 아내에게 ‘공포에 몰린 구역질과도 같이 배설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전치시킨 것이다. 용하는 또한 동생에 대한 열등의식과 자신을 벗어나려는 아내에 대한 징벌로 그녀를 능욕한다. 삼수, 준구 역시 불안한 주체권력을 보전하려는 욕망을 여자를 겁탈하는 것으로 실현한다. 권력과 힘으로 겁탈을 하고 겁탈은 다시 자신들의 힘을 재강화한다. 겁탈은 여성을 피해자화, 사물화하여 주체성을 소거함으로써 주체의 권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18) 도노번, 앞의 글, 286쪽에서 재인용.

여성의 피해자화는 타자화로 이행된다. ‘밀천 안 달이고 재미보고’ 싫다는 년 묶어놓고 하는 그 재미 “조선계집애 하나 즐기기로” 등에서 볼 수 있듯, 삼수 등 남성인물들이 여성을 겁탈할 때 주로 부각시키는 것이 쾌락담론이라는 점은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음란성, 성적 탐닉 등 쾌락담론이 전면화되는 것은 겁탈의 폭력성이 은폐되고 희생자의 고통이 가려지는 효과를 일정 정도 담보한다. 자신이 겁탈한 여성을 향한, ‘내 생각 오지게 날 기라. 수수밭 생각이 날 기라 말이다’라는 삼수의 독백은 “자신의 쾌락에 빠져 피해자 역시 욕망을 즐긴다고 생각해버림으로써 그 행위의 폭력성을 외면하는 ‘가해자의 모호한 의식’¹⁹⁾을 잘 설명한다. 겁탈을 쾌락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은 폭력을 감춤으로써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음란성에 전염시킨다. 이로 인해 여성인물의 타자화는 가속화된다. 희생자는 타락한 행위의 이미지 자체에 깊이 감염된다. ‘불법적인 쾌락’, ‘겁탈의 음란성’에만 집중되는 시선 때문에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확산된다.²⁰⁾ 정조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음란성의 부각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인 겁탈 피해자를 음란성에 전염, 오염된 존재로 타자화한다.

하인인 삼수가 자신이 겁탈한 여성에게 죽음을 명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니 신세도 이제 마지맥이다. 흐흐흐흐……” (……) 니를 데리고 갈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께로 알아서 하라고, 목을 매달든가 새미에 빠지든가 <4-156>

수동이 편에서는 준구에게 몸을 맡긴 계집이라 하여 멸시와 미움을 받았고 다른 노비들은 애처롭게 생각하지만 노리개가 된 계집이라는 멸시의 감정이 있었다.<3-391>

흉한 모습이다. 길상은 송애가 이미 당해버린 것을 감지한다. (……) 동

19) 비가렐로, 앞의 책, 42쪽

20) 비가렐로, 앞의 책, 50-51쪽

정심이 일지 않는다. 미운 생각도 없다. 다만 싫은 생각, 보기가 민망스럽다는 냉정한 거리감이 있을 뿐이다.<6-177>

검탈이 쾌락담론의 지평에 놓이게 되면서 희생자에게는 접촉으로 인한 오염의 혐의가 덧씌워진다. 이들에게 있어 여성은 취약한 피해자이자, 성애화된 대상이고 정조를 잃었다는 이유로 오염되어 ‘못쓰게 된’ 사물이다. 피해자들을 ‘목을 매달든가 새미에 빠지든가’의 택일에 처단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오염의식 때문이다. 검탈당하는 동시에 타락하고 오염된 존재가 되어 배제와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구멍난 가시나’ ‘한번 잊지른 물’등의 은유를 덧씌우는 소문, 풍문은 정조상실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고착시키며 여성의 타자화를 가속화한다.²¹⁾

검탈당한 여성을 타자화한다는 점에서 모든 남성인물은 유사하다. 두 수에게 검탈당한 송애를 바라보는 길상의 시선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관심의 초점은 검탈자에 대한 분노나 의협심이 아니라 ‘이미 당해버린 것’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검탈당한 송애에 대해 ‘흉한 모습’ ‘다만 싫은 생각’ ‘냉정한 거리감’ 등의 반응이 있을 뿐이다. 긍정적 인물이든 부정적 인물이든, 남성인물들 간에는 피해자 여성의 오염과 타자화에 관한 광범위한 동의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힘과 권력에 의한 여성의 피해자화, 타자화는 남성주체의 범주를 확고히 하는 한편, 남성간의 공모와 담합으로 이어진다. 삼수의 도

21) 강간을 이렇게 서사화하는 것은 마커스의 강간스크립트에 정확히 부합한다. 그녀는 “강간스크립트는 여성의 몸을 취약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관통가능하고, 상처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 전체적인 여성의 몸은 질(vagina)로 상징되며, 불가피하게 손상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허약한 내부공간으로 인지된다.”고 한다.(Marcus, op.cit., p.398). 그리고 바로 이런 강간스크립트로 인하여 “강간은 성애화된 여성의 몸을 상처받은 몸, 주체-주체의 폭력으로부터 배제된 몸, 그래서 공정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배제된 몸으로 규정하게 한다. 강간자는 폭력의 게임 안에서 여성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을 [남성들과의] 폭력 게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ibid., 397)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음으로 준구는 편리하게 삼월을 범하고 준구는 그 대가로 삼수에게 삼월을 물려준다. ‘노리개, 헌계집’등으로 삼월을 호명하고 교환함으로써 이들은 동성간의 연대를 공고히 한다. ‘배개동서’라는 삼수의 독백에 함의된 양반과의 동급이라는 환상은 남성동맹을 잘 보여준다.

따지고 보든 같이 외입을 하자는건데 머가 나쁘노. 그러믄 이 양반하고 나하고 배개동서가 되는 거 아니가? <3-393>

흥 네년 애비가 종놈한테 상사람 딸자식 즐까부냐고 했졌다. 그 주둥아릴 치키들고 와서 내 딸 테리가시오 하지는 못할기구마. 이자는 내가 덜인 밀천은 뽑았이니께 다시 상관할 필요가 없지. <4-156>

네 서방놈 죄야 돈 좋아하는 그놈에게 준 벌이란 말이야. <9-405>

뿐만 아니라 검탈자들은 검탈을 동성간의 회계를 위한 매개로 이용한다. 삼수는 두리 아버지에게 대한 분노를 두리를 검탈함으로써 해소한다. “내가 덜인 밀천은 뽑았으니께”라는 말에서 잘 드러나듯 남성들 간의 회계를 검탈로써 해결한다. 남/녀의 성구분은 종놈/상사람이라는 신분차이보다 훨씬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수 역시 돈 좋아하는 정보원인 차생에 대한 처벌로 그 아내를 검탈한다. 두수에게 여성은 그 남편을 징벌하기 위한 손쉬운 수단, 대리인일 뿐이다.

이와 같은 폭력은 군사제국주의를 등에 업을 때 더욱 증폭된다. 정신대가 대표하듯 전쟁이 전제될 때 국가권력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묵인하거나 조장한다. 여성을 동원하여 남성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조선계집애 하나 잠시 즐겼기로 그게 뭐 어떠냐! 목숨을 건 대일제국의 군인, 누가 뭐라 할 놈들 없다. <19-429>

두수는 끼들끼들 웃으며 왜병들이 여자를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특히 여자를 고문할 때 어떤 식으로 강간을 하며 처리하는가를 지껄이면서 서서히 가랑잎처럼 가벼운 여자몸에 침입을 기도한다. <9-405>

정희진에 의하면 전쟁에서 여성은 전리품으로 여겨지며 전시검탈은 전리품을 소비하는 행위이며 이는 약자에 대한 공격을 통한 남성 연대의 확인이다. 이 점에서 종군 위안부는 전쟁을 구성하는 핵심제도이다.²²⁾ “여자의 육체가 재산이 된 시절로부터 여체에의 접근은 전쟁의 실제적인 보수로 간주되”기에 검탈과 매음은 실제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²³⁾ 남희를 검탈한 일본군인의 무감각은 이에 연유한다. ‘대일제국의 군인이 조선 계집애 하나 즐기기로 뭐라 할 놈 없다’라는 언설은 검탈에 대한 제국과 군인의 공모관계를 요약한다. 밀정인 두수가 왜병이 여성을 고문하는 방식에 근거하여 검탈을 자행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의 공모 속에서 피해자인 여성인물들은 유책당사자이자 폐기대상으로 전락한다. 피해자인 남희에게는 ‘정신대로 보내버린다는’ 협박이, 을레에게는 자식을 버린 데 대한 ‘천벌’²⁴⁾이라는 혐의와 죄의식이 부과된다. 제국주의군인의 폭력을 괄호치고 모성의 위반²⁵⁾이 유발한 천벌로 자연화한 것이다. 여기서 여성을 교환하고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유지되는 남성간의 공모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남희를 보호하고자 하는 연학의 선의 또한 이와 같은 남성동맹의 틀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의 분노는 남희에게 기입된 “남성, 국가가 소유한 기호 상징 한반도 가족 민족의 의미”²⁶⁾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순결한 조선의 딸이라는 기호 속에

22) 정희진, 앞의 책, 257-269쪽.

23) 브라운밀러, 앞의 책, 50쪽.

24) 이는 “당신이 받을 천벌을 남희가 대신 받은 거요”라는 연학의 말에서 인용한 것이다. 연학의 분노는 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을레의 모성결핍을 향한다. 이경, 앞의 글(2007) 참조. 연학은 남희가 입은 검탈피해의 원인을 을레에 대한 천벌에 두고 있다.

25) 집을 나가 일본군인을 상대로 요정을 경영하고 있는 엄마 양을레의 원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한 검탈자를 괄호치고 천벌로 자연화하는 것은 남성지배 이데올로기의 소산이다. 이는 또한 여성의 검탈 역시 민족의 은유를 입을 때라야만 공론화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성의 위반의 결과로 순결한 조선의 딸이 오염되었다는 인과론을 구사하는 것이다.(이경, 『『토지』에 나타난 질병의 젠더화 연구』, 『현상과 인식』 제31권, 2007년 봄, 167쪽)

26) 정희진, 앞의 책, 261쪽

서 남획의 피해는 승인,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전시에 여성에 대한 겁탈은 피해 여성의 육체에 대한 것인 동시에 피해여성의 남편 혹은 아버지에 대한 적대행위일 수 있다는 수잔 브라운밀러²⁷⁾의 이야기와도 궤를 같이 한다. 즉, 남획은 제국주의의 군인의 욕망이 기입되는 기호에서 침탈되는 조선의 비극이 기입되는 기호로 이동한 셈이다.

이상에서 여성을 피해자화, 타자화함으로써 주체권력과 동성사회의 연대를 확보하는 남성지배의 양태를 살펴보았다.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겁탈과 부자동맹을 살펴본다.

2.2. 사랑에 의한 겁탈과 부자동맹

사랑에 의한 겁탈이라는 명명에 잘 드러나 있듯 남성인물들의 행태는 분열적이다. 칠성기도하러 가던 귀녀를 야산의 가랑잎 더미 위에 쓰러뜨린 강포수, 백일기도 중인 청상을 겁탈한 김개주,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산적, 병사, 늑대처럼 장이를 유린한’ 홍이는 명백한 겁탈의 가해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겁탈자의 자격에 현저히 미달한 것은 그 전후가 사랑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심장이 부서지는 것 같은 질투가 치솟았다. “죽으면 죽었지!” 외치며 귀녀를 가랑잎더미 위에 쓰러뜨린다.<2-230>

(……) 경건하며 수줍기가 마치 신방에 든 순진한 신랑같았다. 가랑잎 위에 제 저고리를 벗어깔고 여자의 몸을 싸안은 그것은 눈물 겹도록 지순한 광경이었다.<2-232>

윤씨부인을 범했던 개주는 대노한 형에게 말했다. “지아비 잃은 여인을 사모하였기로 어찌 죄가 된다 하시오. 하늘이 육신을 주었거늘 어찌 육신을 거역하라 하시오?”<2-152>

27) 브라운밀러, 앞의 책, 56쪽.

“아무말 하지 마라. 하면 울음이 터진다. 항상 나는 네가 보고 싶었다. 보고 싶었어. 보고 싶어…….” 장이 손에서 긴장이 풀어지는 것 같다.<9-102>

기도하러 가는 귀녀를 덮친 것은 분명히 겁탈이지만 그 전후의 계기가 되는 것은 사랑이다. ‘심장이 부서지는 것 같은 질투’가 겁탈의 직접적인 계기이고 여자에 대한 지극한 정성으로 인해 겁탈과정은 거의 종교적 의례처럼 제시된다. 겁탈자인 강포수가 겁탈당한 귀녀보다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아이러니 역시 사랑으로 인해 발생한다. 처음을 제외한 전 과정에서의 헌신은 겁탈의 폭력성을 은폐, 삭제하며 죽기 직전의 귀녀를 참회하게 만드는 것도 사랑이다. 겁탈현장이 ‘눈물겹도록 지순한 광경’이며 강포수는 ‘신방에 든 순진한 신랑’급으로 서술되는 것 또한 그가 표방한 사랑 때문이다. 강포수가 이들과 함께 가족을 이룬 것은 신방, 신랑이라는 비유에 대한 사후적 증명인 셈이다.

김개주는 기도중인 청상을 범한 가해자이지만, 윤씨에 대한 사모의 정과 혁명적 의지는 폭력을 감추는 장치 역할을 한다. 이는 그가 동학의 접주라는 사실과도 연관된다. 동학은 과부의 재가를 금하는 구한말의 여성 억압적 제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아비 잃은 여인을 사모하였기로 어찌 죄가 된다 하시오. 하늘이 육신을 주었거늘 어찌 육신을 거역하라 하시오?”라는 언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사모’라는 이름으로 겁탈이라는 ‘죄’를 가린다. 사랑은 겁탈폭력의 알리바이로 작용한다. 사랑은 남성지배의 폭력을 가리는 안전장치이자 여성의 피해를 가리는 환상의 장치이기도 하다.²⁸⁾

사랑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이들이 가한 겁탈의 폭력이 희석된다면 홍이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격렬한 애증이 부가된다. ‘오늘 가시나 하나 신세 조진다’는 명백한 결단 하에 홍이는 장이를 겁탈하지만

28) 상현과 영광의 경우 또한 사랑/겁탈의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 사랑이 계기가 되어 상현은 기화를 쓰러뜨렸고 영광은 그러지 않았으나, 쓰러뜨리거나 그렇지 않거나의 여부를 남성주체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지점을 가진다.

전후좌우의 맥락은 온 힘을 다해 이것은 겁탈이 아니라며 그 폭력을 가린다. ‘개처럼 악을 쓰는’ 임이네에 대한 혐오와 양모인 월선에게서 비롯된 그리움은 여성에 대한 애증으로 수렴되며 장이에 대한 겁탈은 그 발현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겁탈을 전후해서 고통과 통곡이 배치된 것은 겁탈의 폭력성보다는 오히려 여자에 대한 애증에 차단된 운명의 설움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폭력이 마치 설움에 기인한 위악인 것처럼 전치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이 전면화되고 겁탈은 후경화됨으로써 폭력으로부터의 면책가능성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수혜자이자 실현자이며 또 공모자들이다. 사랑은 성적 목적을 감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파이어스톤의 주장²⁹⁾은 차치하더라도 겁탈폭력을 희석시키는 이들의 사랑 자체가 이미 여성을 대상화, 비가시화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는 점, 겁탈/사랑을 통해 이들이 아버지 역할을 완료한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³⁰⁾

여기서 제시되는 사랑/겁탈은 여성의 대상화와 비가시화를 통해 정초된다. 거의 숭배에 가까운 경우에도 남성주체의 실현만 있지 상대의 심리나 감정에 대한 배려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숭배대상이거나 친밀성의 대상이거나, 겁탈당하거나 공모하거나 간에 여성인물들은 남성인물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수동적인 대상일 뿐이다.

사랑을 표방하는 모든 겁탈은 주체화 의례³¹⁾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겁탈은 남성인물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강포수와 김개주

29) 도노번, 앞의 책, 275쪽에서 재인용.

30) 백옥경(『조선시대의 여성폭력과 법 - 경상도 지역의 <검안>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9집, 2009)의 연구가 지적하듯, 성폭력을 희석시키고 낭만화하는 제도과 그 배경을 이루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장치를 봉합한 채 이루어지는 겁탈의 단죄는 지극히 일면적인 해결일 뿐이다.

31) 수잔 브라운 밀러(앞의 책, 50쪽)은 이런 맥락에서 “수세기 동안 강간은 (……) 남자다움과 성공에 대한 병사들의 부분적 증거가 되었다. 즉 복무에 대한 실제적 보수가 된 셈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는 실제적으로 아들을 양육하는 아버지 역할을 담당한다. 강포수는 아들을 위해 죽음을 택하는 헌신적인 부성을 드러낸다.³²⁾ 겁탈을 매개로 남자는 완전한 부성으로 성숙하거나 남편으로 거듭난다. ‘당신의 유린도 옳았다’는 환이의 독백은 아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윤씨 부인을 괄호치고 아버지의 겁탈을 그 아들이 사랑으로 확정짓는 것이다. 아비의 겁탈을 아들이 추인하는 이와 같은 부자관계에서 여성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주체권력과 동성사회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겁탈과 사랑 그리고 결혼을 거의 동시에 통과하면서 홍이는 성숙한 어른으로 구성된다. 장이에게조차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마치 아버지처럼 다독인다. 겁탈자가 아버지의 대리인이 되는 극적 변이는 가부장제와 겁탈의 친연성으로 인해 가능하다. 장이에게 한 자기 잘못의 대속을 아내에게 요청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자신의 ‘뭍쓸 짓’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의 반성이 아니라 아내의 인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치시킨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일’이라며 아내를 훈계하는 그의 권력은 가장이라는 위치로부터 나온다.

이상에서 겁탈폭력을 통해 남성간 회계를 완성하고 남성동맹을 확보하는 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권력과 사랑으로 분할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대상화를 매개로 한 남성의 주체되기과 연대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겁탈은 예외적 폭력이 아니라 사랑의 연속선상에서 존재하며 가족제도로의 접합 또한 매우 용이하다. 사랑, 가족제도, 아버지담론 등은 겁탈의 알리바이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화’된 겁탈의 구도 속에서 괄호쳐진 피겁탈자의 목소리를 따라가본다. 피해자의 육성을 통해 그녀를 타자화, 피해자화시키는 지점을 확인하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본다.

32) 강포수는 아들에게 어머니인 귀녀가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게 하기 위해 자살을 택한다. 자신이 죽어야 몽치가 귀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감추어지기 때문이다.

3. 곽탈에 대응하는 협상과 부정의 전략

곽탈의 피해자가 된 여성의 몸은 성모순, 계급모순, 민족모순이 집결되는 처소이다. 제도화된 곽탈구조의 악력이 여성을 포획하여 오염과 타락의 시선을 덧씌우는 구도 속에서 여성인물은 수동적 피해자 혹은 타자의 위치에 배치될 수밖에 없다. 여성의 몸을 허약한 내부공간으로 의미화하고 여성을 수동성, 희생자화, 타자화에 영속시키는 위험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담론전략이 요청되며, 이를 위하여 이 글은 여성인물의 직접적인 발화나 내면 고백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화, 타자화에서 일탈하는 반담론의 가능성을 탐색해내고자 한다. 여성인물들의 대응양식에 주목함으로써 피해자에서 행위주체로 나아가는 궤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정조이데올로기로 인해 곽탈이후 남성은 원래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여성은 애초의 무력함이 배가되지만 이들이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삼월이, 송애 등 여성인물들의 곽탈자에 대한 비주체적, 의존적 태도는 동시에 그녀들의 능동적 협상지점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태산 같으나 약아지는 힘이 더 강하다.<6-173>

그러나 혼인하여 같이 살자는 얘기만은 하지 않는다. 어느덧 송애는 자신이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7-113>

가해자인 준구를 ‘구렁이’에서 ‘나으리’로, 두수를 ‘죽일놈’에서 ‘혼인하여 같이 살자는 말’을 기대하는 대상으로 승격시키는 삼월과 송애의 변화는 ‘여잔 으레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조와 죽음 사이에 놓인 여성인물이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협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협상의지는 피해자화를 거부하는 ‘약아지는 힘’에 기인하며 이 때문에 ‘죽은 듯 축 늘어진 여자’는 ‘용수철같이’ 몸을 일으킬 수 있다. 정조냐 죽음이나의

택일에서 일탈하는 능동적 행위라는 점에서 그녀의 생존 노력은 주체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가해자 남성이 구원과 시혜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그녀의 공모적, 의존적 태도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피해자가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이다. 차생의 아내, 두리 등이 생존자로서 안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해자의 입단속인 것이다.

이들의 반응은 개인의 자구책을 넘어 가부장제의 결여를 노정하는 반담론의 가능성을 지닌다. 삼월은 실패했지만, 두리와 차생의 아내는 피해자이되 타자화에서 일정 정도 벗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인물들이 겁탈사실을 봉합한 채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제도회귀적인 동시에 금기 위반의 의의를 지닌다. 이들의 회귀에는 정조관념으로부터의 일탈이 포함된다. ‘겁탈 → 피해자화 → 타자화’라는 과정을 우회하여 그들은 ‘피겁탈 사실’을 자신의 기획에 의하여 변형하거나 은닉함으로써 일상으로 회귀한다. 정조상실을 봉합한 이들은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자신들이 회귀한 가부장제 속의 빈 틈을 아는 주체로 이동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은 겁탈로 인해 훼손된 정조라는 자신들의 결여뿐 아니라 이에 바탕하여 유지되는 가부장제의 결함까지도 인식하는 주체가 된다. 이는 또한 대개의 여성인물이 정조관념 자체보다는 정조관념을 내세워 자신을 낙인찍고 타자화하는 세상의 시선에 구애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송애의 대응은 가부장제의 정상성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양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녀 역시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시혜에 의존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섹슈얼리티에 대한 각성은 그녀를 겁탈 피해자에서 섹슈얼리티의 능동적 주체로 이동시킨다. ‘사내로서의 능력’남자를 알아버린 송애’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송애는 오염, 타락이라는 낙인에 매여 있기보다는 능동적인 섹슈얼리티의 주체로 이동한다. 카페여급에서 출발하여 일본인과의 동거를 거쳐 요정을 경영하기에 이른 그녀의 궤적은 타자화 속에서 주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남자를 알아버린 송애는 대담하게 매달려온다.<7-276>

사내라면 모두 같은 개, 그 개의 본성을 이용하여 여자는 적당히 울귀내면 된다는 신조도 터득하였다.<8-143>

인력거 타고 다니는 년은 갓다바치지만 두 발로 걸어다니는 나는 이나는 왜놈을 뺏겨먹는다 이거야.(……) 이 세상에 그것 달린 놈이 있는 한 밥 먹을 수 있고 옷 입을 수 있는 내 신세가 좀 좋으나<8-145>

“제일 밑바닥 색주가보다 못한 것이 일본인하고 사는 조선여자”라는 주위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타자화된 시선에 포획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상성에 바탕한 가부장제 자체의 근간을 뒤흔든다.³³⁾ 여성에게 요구되는 정조와 윤리로 직조된 가부장적 세상을 농담화하는 ‘베짱’을 갖게 된 것이다. 그녀는 조선인/일본인의 차이보다는 ‘사내라면 모두 같은 개’라는 동일성에 주목한다. 실제로 혈통과 정조관념의 외부자인 그녀와 결혼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일본헌병과 조선남자는 차이가 없기에 ‘개의 본성을 이용하여 여자는 적당히 울귀내면 된다는 신조’하에 일본헌병과의 동거를 수용한다. 민족모순보다는 성모순을 훨씬 근본적인 것으로 보는 셈이다. 보부아르에 의하면, 성판매 여성은 타자, 대상, 착취당하는 여성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 주체, 착취자라는 면에서 기성사회의 성적 관습에 도전하며 나아가 자신의 타자성을 이용하여 이익을 본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타자인 여성은 일방적으로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남성 욕망의 대상인 자신의 타자성을 활용하여 남성에게 권력을 행사한다.³⁴⁾ 송애가 스스로를 ‘갓다바치는 것’이 아니라 ‘왜놈을 뺏겨먹는’ 존재로 정의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보부아르적 의미에서의 권력행사이다. 혹은 “그것 달린 놈이 있는 한 밥 먹을 수 있고 옷 입을 수 있는 내 신세”라는 자신

33) 이런 반담론의 형성이 바로 마커스(op.cit., p.400)가 말하는 “폭력의 문법(grammar of violence)을 수정하고 우리 자신을 공격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재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34) 보부아르, 『제2의 성』; 정희진, 앞의 책, 231쪽에서 재인용)

의 처지에 대한 입장정리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녀는 정상으로부터 밀려난 자신의 타자성을 심분 발휘해 경제적 주체-되기를 도모한다. 물론 카페여급 혹은 요정경영이라는 남성의존적이고 기생적인 사업을 통한 주체-되기의 실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서 섹슈얼리티와 경제의 주체로 이동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명희의 경우 남편에 의한 겁탈은 가부장제 혹은 결혼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남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공격하고 방어한다. (……) 명희는 몸을 솟구치듯 용하 얼굴에 손톱을 세운다.<14-53>

결혼에 내재된 폭력적 남성중심주의와 그에 대응하는 명희의 관계는 ‘혼신의 힘을 다해 공격하고 방어한다’는 표현에 압축되어 있다. 남자의 얼굴에 손톱을 세우는 명희의 대응은 소설에서 드러나는 거의 유일한 물리적 저항으로 비록 실패한 저항이지만 이는 주체화의 중요한 표지이다. 그녀는 ‘육체를 통한 영혼의 도살’을 자살 시도와 죽음같은 잠으로 극복하는데 이는 가부장제의 악력을 넘어서기 위한 일종의 상징적 의례이다.³⁵⁾ 상징적 죽음을 통과한 뒤 그녀는 비주체적 가부장제 속의 삶을 벗고 사랑으로부터도 일탈하여 스스로가 주체가 된 삶을 시작한다.

남성은 여성인물을 겁탈하여 피해자화, 타자화하였지만, 『토지』의 여성 인물들이 여기서 일탈³⁶⁾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욕망으로 인해 정조 이데올로기로부터 일정 정도 분리되기 때문이다. 정조관념으로부터의 일탈은 가부장제로의 회귀라는 가장 순응적인 경우에서부터 가부장제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가장 저항적인 경우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보

35) 이경, 『『토지』에 나타난 길과 집 사이의 여성서사』, 제1회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 자료집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박경리 문학 오십년의 재조명』, 토지문학관, 2010, 51쪽

36) 구한말에서 현대로 이동할수록 정조담론에서의 일탈폭이 커지고 여성들은 피해자화, 타자화에서 벗어나 경제적 주체로 이동한다.

호하는 매개이자 반담론의 가능성과 능동성의 계기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인물들은 겁탈이라는 폭력에 직면함으로써 정조관념의 배면을 이루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각성하고 주체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4. 사랑/겁탈을 심문하는 위반의 담론전략

이제 사랑/겁탈의 사후적 승인을 통해 출구를 찾는 작중인물의 궤적을 살펴보자.

장은 자신을 범한 흥이를 잊지 못해 거듭 되돌아오고, 귀녀는 자신을 쓰러뜨린 강포수에게 ‘동침의 비밀, 쾌락을 느끼기 시작’하며, 윤씨부인 역시 자신을 겁탈한 김개주에 대한 ‘죄악의 정열’을 묻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문제적인 지점이다. 겁탈 피해자가 겁탈을 부인하는 태도는 남성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동의와 공모의 혐의를 피할 수 없다. 이는 “성사된 강간은 동의된 강간이다.”³⁷⁾로 요약되는 가부장적 언술을 증명함으로써 가해자 남성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는 남성의 폭력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희생자책임론 혹은 쌍벌주의라는 법의 폭력을 합리화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계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작중인물들의 태도는 겁탈의 담론화 방식을 바꾸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들은 여성의 몸을 침탈대상으로 의미화하고 여성을 약자, 피해자에 고착시키는 담론방식에서 일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간의 가시화와 고발의 정당성을 이끌어낸 여성주의의 성과에 주목하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여성의 몸을 침탈대상으로 고착시킬 위험성에 대해서 마커스가 거듭 강조하는 것도 이와 연관하다. 겁탈을 침탈, 침입 등으로 의미화

37) 비가렐로, 앞의 책, 67쪽.

하지 않는 작중인물들의 담론방식은, 겁탈을 기술하는 방식이 겁탈상황을 구성하는 데 관여하고 있기에, 담론전략을 바꾸어야 한다는 마커스의 제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강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탈당하는 그 어떤 것으로 만든다는 데에 그 두려움이 있다. (……) 강간문화의 가장 본원적인 전복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객체로, 재산으로, 그리고 내부공간으로 보는 것을 뒤집는 것이다.³⁸⁾

겁탈/사랑을 중첩시키는 작중인물들의 태도는 여성의 몸을 허약한 내부공간으로 고착시키고 여성을 희생자에 영속시키는 피해자 담론을 벗어나 새로운 담론전략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제공한다. 겁탈에 사랑을 겹쳐 놓는 작중인물의 태도가 가부장제의 질곡을 되비추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 점을 더욱 강화한다. 노비라는 신분, 수절을 강요하는 정조관념, 아들을 위해 딸은 희생되어야 하는 풍속 등 겁탈이라는 폭력 이전에 선재하는 각종 질곡들은 겁탈에 상응하는 또 다른 유형의 여성억압에 다른 것이 아니다. 겁탈/사랑은 오히려 이로부터의 일탈을 순간적으로나마 가능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겁탈 피해자로서 사랑을 드러내는 여성인물들의 행보가 주목을 요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겁탈폭력의 가해자인 홍이를 사랑하여 거듭 되돌아오는 장이의 태도는 일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자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주체화와 관련하여 장이의 태도는 아무리 강하게 비판되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와 같은 그녀의 순응적 태도가 동시에 그 폭력을 중단시키는 일말의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홍이에게 애정이 있으나 아버지와 오빠에 의해 ‘팔려가야 하는’ 입장인 그녀에게 있어 홍이의 겁탈은 일종의 기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자신의 감정이 투여된 대상인 홍이의 겁탈/사랑을 수용하는 것이 장이의

38) S. Marcus, op.cit., p.399.

주체-되기의 최소한의 실현인 것이다. 비록, 야산에서의 기습에 의해 촉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흥이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오빠와 아버지 그리고 미래의 남편 사이에서 거래되는 한낱 기호에 불과했던 장이는 스스로의 감정과 선택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거래관계의 산물인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그녀가 이후에도 흥이에게 되풀이 강박되는 것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귀녀의 대응양식은 이와 같은 일탈을 더욱 극단화한다.

귀녀의 생각은 암팡지고 민첩하게 돌아간다. 어차피 버린 몸이다. 지아비가 있어 정조를 지켜야 할 처지도 아니다. 칠성이든 강포수든 누구이든 원하는 것은 남자의 씨가 아닌가. (……) 판단이 후딱후딱 지나갔다. (……) 썸 속으로만 대하는 칠성이나 거들떠보지조차 않는 최치수나 심지어 평산이까지, 마음만은 도도했던 귀녀의 자신을 그네들은 꺾었다. 여자로서 용모에 자신이 있는 귀녀로서는 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 그런 지경에서 영기영기 달라붙는 강포수가 관심은 없으면서 귀녀에게 한 가닥 위안이 되었던 것이다. <2-230-231>

귀녀는 노름꾼같이 말했다. (……) “나하고 살자, 나하고.” (……) 귀녀는 동침의 비밀, 쾌락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2-232>

칠성을 동원하여 임신하고 그 아이를 치수의 혈손으로 주장하려는 귀녀의 음모 과정에 등장한 강포수의 겁탈은 남/녀, 가해자/피해자, 능동/수동이라는 겁탈의 공식 외부에 존재한다. 사랑/겁탈이라는 분할은 중요하지 않으며 단지 그것은 제도 수정의 계기라는 의미를 지닐 뿐이다. 겁탈자라는 외관으로 충격되긴 했지만 강포수는 사실상 ‘남인’ 것에 가깝고 피해자라는 외관을 잠시 갖추긴 했지만 귀녀의 입장은 사실상 ‘남’ 주체에 가깝다. ‘노름꾼’ 같은 귀녀의 민첩한 판단력으로 인해 강포수는 겁탈의 주체가 아니라 칠성의 대체제이자 계획의 보완재로 강등된다. 그는 가해자, 공격주체의 단단한 중심이 아니라 유동체³⁹⁾로 자리매김되고 귀녀

는 행위의 주체로 재설정되는 것이다. 실제로 애초에 계획했던 칠성이 아니라 강포수로 인해 임신에 성공함으로써 적어도 계획상으로는 혈통에 기인하는 양반제도와 가부장제의 기율을 되받아치는 전략을 완성한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기획은 실패하고 그녀는 처단⁴⁰⁾되지만 이 글은, 겁탈을 여성의 몸에 대한 침탈이 아니라 기획과 재조정의 계기로 수용하는 그녀의 대응양식 속에서 겁탈이 가진 담론적 힘이 무력하게 되었다는 점을 중시하고자 한다.⁴¹⁾ 임신과 출산, 그 전과정의 담지자인 여성주체의 권한으로 '원하는 것은 남자의 씨'일 뿐 그것의 귀속처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귀녀의 태도는 혈통의 근원 자체를 무력화한다. 혈통은 극복 불능의 숭엄한 경계가 아니라 단지 최씨가문에 입성하기 위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겁탈에 대처하는 귀녀의 태도는 오히려 가부장제의 주인담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윤씨부인이 보인 사랑이라는 사후처리는 강간신화에 대한 복무로서 남성지배의 폭력을 은폐하는 한계를 지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이데올로기에 균열을 일으키는 반담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사실에 유의하고자 한다.

윤씨부인의 의식의 심층을 한층 더 깊이 파고 내려간다면 최악의 정열로써 침묵되어 있는 곳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십 년 넘는 세월 동안 그의 바닥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 그 남자의 비극이 삼줄과 같은 질긴 거미줄을 쳐놓고 있었다. 그 남자의 비극과 더불어 살아온 윤씨부인이 사면

39) 엘리자베스 그로츠, 임옥희역, 『피비우스의 띠로서의 몸』, 어이연, 2001, 366-384쪽. 그로츠는 남성체액의 액체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확고부동한 남성중심성을 뒤흔든다.

40) 크리드에 의하면 마녀는 가부장제 담론 안에서 상징계 질서의 무자비한 적으로 재현된다는 점에서 비체적 존재로 규정된다고 한다.(바바라 크리드, 손희정 역, 『여성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 어이연, 2008, 148쪽) 귀녀가 살인과 연관되어 처단을 받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비체화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41) 팜프파탈은 “남성의 세계와 가치에 대한 경멸을 오만하게 표현”한다고 본 펠스키(김은하, 『비밀과 거짓말, 폭로와 발설의 쾌락』, 『여성문학연구』 제26호, 2011, 326쪽에서 재인용)의 단언은 귀녀의 경우를 잘 설명한다.

을 거절한 것도 그 때문이요 피맺힌 아들의 매질을 원한 것도 그 때문이다. 뜻밖의 재난으로써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운명을 원망하지도 않았었다. 영원히 사면되기를 원치 않았던 그에게는 그와 같이 끈질기고 무서운 사랑의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몹쓸 어미로고, 이 죄 많은 어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2-386>

윤씨부인은 죽거나 의사죽음을 명령하는 정조이데올로기 대신 겁탈/사랑의 승인을 통해 주체-되기를 선택한다.

겁탈을 ‘최악의 정열’로 수용하는 윤씨의 독백은 이를 증명한다. ‘의식의 심층’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승인은 ‘아들의 매질을 원하는’ 자기처벌⁴²⁾로 이어지지만 이와 같은 징벌에서 ‘영원히 사면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고백은 ‘끈질기고 무서운 사랑의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처벌 자체는 가부장적 기율에 바탕하지만 윤씨부인이 기꺼이 자기처벌에 처단된 것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부터 일탈하여 섹슈얼리티의 주체로 스스로를 위치시키고자 하는 ‘이기심’의 표현이다. 지배자의 담론을 내면화한 결과 폭력보다 유혹에 넘어가 자신을 유기하는 것을 더 심각한 타락이자 가문에 대한 변절로 여긴 레티프의 여인들⁴³⁾과 달리, 윤씨부인은 김서방 내외에 의해 공증된 겁탈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조를 상실한 피해자의 역할 대신 정조담론에 대한 위반을 택한다. 사랑/겁탈의 중첩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인 정조/겁탈의 대쌍을 뒤흔들어놓을 뿐 아니라 가해자/피해자, 능동/수동의 구조내에서 여성의 몸을 침탈대상으로 고착시키는 겁탈스크립트 자체를 균열함으로써 새로운 담론형성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후의 여가장으로서의 행적은 이와 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펼쳐진 행위주체성의 실현이라 할 수 있겠다.⁴⁴⁾ 침탈

42) 이는 또한 남성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남성의 경우 섹슈얼리티와 부성 그리고 남성 연대는 공존하는데 여성인물은 섹슈얼리티와 모성이 충돌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43) 비가렐로, 앞의 책, 85쪽.

44) 김순-그레함의 말처럼 그녀의 행적은 여성적 공간/섹슈얼리티에 대한 다른 담론을 생산함으로써 차별화된 여성 물질성과 살만함(livability)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

대상으로 피해자화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행위주체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여성인물은 겁탈과 사랑이 연속선상에 자리하는 가부장제의 질곡과 대면하고 또 그로부터 자신의 주체성을 확보한다. 겁탈을 사후적으로 사랑으로 수용하는 여성인물의 태도는 가부장제에 대한 순치라는 점에서 당연히 여성주의적 한계와 위험으로 지적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이 수동적 피해자와 타자의 위치에 고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죽거나 죽은 듯이 살기를 원하는 가부장제의 명령에 반하여 그녀들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승인하고 스스로 상황과 맥락을 구성하는 행위주체의 능동적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성인물들이 드러내는 섹슈얼리티는 가부장제의 거부로까지 가는 나아가지 않으나, 일시적으로나마 가부장적 신분사회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계기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혈통/정조관념을 비롯한 여성통제 매커니즘에 대한 심문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여성의 몸을 침탈공간으로 의미화하고 여성을 피해자화함으로써 스스로를 침략 및 지배 주체로 위치시키고 정조이데올로기를 통해 이를 재강화하는 남성지배에 틈과 균열을 일으키는 담론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이 글은 『토지』에 나타난 겁탈모티프를 분석함으로써 겁탈이 가부장제가 발현하는 양상의 하나임을 밝히고 이에 대응하는 여성인물들의 태도를 통해서 피해자화, 타자화의 담론구조를 벗어나 그 외부를 찾고자 하는 시도였다. 피해자담론을 넘어서는 여성주체의 가능성을 드러냄으로써 『토지』의 여성주의적 의의를 발견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랑, 성매매, 성폭력을 동일선상에 두는 연속선 개념과 비가렐로의 겁탈의 계보학, 새론 마커스와 김순-그레함의 담론전략을 원용하였으며 그 결과 겁탈은 정상과 질서를 위협하는 예외적이고 일탈적 충동이 아니라 정상과 질서가 바탕해 있는 구조, 즉 가부장 권력, 제도, 젠더, 국가 등의 전 담론체계와 연동된 폭력임을 드러내었고 이에 대한 여성인물의 대응양식에서 여성 통제 매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겁탈구조를 넘어서는 반담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우선, 권력과 힘에 의한 겁탈이 여성을 피해자화, 타자화함으로써 정조 상실을 돌이킬 수 없는 오염으로 고착시키며 가해자/피해자의 권력관계를 재강화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을 교환함으로써 주체권력과 동성간 회계, 그리고 동성사회의 연대를 확보하는 남성지배의 양태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가해자의 예외적 외설성과 악마성이 부각됨으로써 겁탈폭력의 구조적 결함이 원경화되고 단지 개인적 악행에 한정되는 경향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⁴⁵⁾

사랑이라는 이름에 의한 겁탈 폭력 또한 마찬가지다. 겁탈의 계기를 이루는 사랑의 지순함과 열정 그리고 고통은 겁탈이라는 폭력을 감춘다. 사랑이 겁탈의 알리바이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문제적이지만 그것이 표방하는 사랑 자체 역시 여성을 대상화, 비가시화하는 일방향성을 노정시킨다. 사랑/겁탈을 분할하고 사랑으로 후자를 가리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호명 역시 남성주체의 권력을 보호하고 여성의 피해를 가리는 가부장적 성장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주체화 의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겁탈이 남성인물을 성장시키고 아버지주체로 완성시킨다는 사실 또한 이 점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남성지배에 대한 폭로와 함께 이 글은 겁탈폭력에 대한 여성인물의 대응양식에 주목하였다. 죽음 혹은 의사죽음이라는 가부장제의

45) 보기 나름으로는 이러한 경향 자체가 우리 사회의 강간스크립트를 투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명령에서 일탈하여 협상과 위반을 통한 주체화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성의 피해자화를 거쳐 남성지배의 재강화와 여성섹슈얼리티의 통제로 귀결되는 강간스크립트의 궤적을 넘어서고자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3장에서는 ‘제도화’된 겁탈에 대한 여성인물의 대응양식을 살펴보았다. 힘과 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입지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육성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그녀를 타자화, 피해자화시키는 지점과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부장제로 편입되거나 그것을 부정하거나 간에 여성인물이 그 구조적 악력의 외부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정조관념으로부터의 일탈 때문이다. 이를 통해 오염과 불결의 낙인찍기에서 벗어나 가부장제와 협상하거나 가부장제를 부정하는 여성인물의 능동적 궤적을 밝혀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랑/겁탈에 대한 여성인물의 수용양식을 살펴보았다. 사랑/겁탈을 출구로 계기화한 여성인물들의 태도는 가부장적 폭력에 대한 순치이자 순응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태도는 정조를 상실한 대가로 죽음 혹은 의사죽음을 명하는 가부장제의 명령에 반하여, 그리고 여성을 피해자와 타자의 위치에 고착시키는 가부장제의 배치를 넘어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승인하고 스스로 상황과 맥락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능동적, 주체적 가능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몸을 허약한 내부공간으로, 여성을 피해자로 의미화하고 고착시키는 겁탈스크립트를 균열하는 반담론의 가능성을 간취해낼 수 있었다.

요컨대, 『토지』는 겁탈을 통해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제도와 대면하는 소설이다. 가해자의 폭력을 넘어 겁탈의 전후좌우에서 스크립트를 짜고 있는 사랑, 가족, 사회 등의 가부장구조를 심문함으로써 법적 징벌을 넘어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그것을 바꾸어내기를 추동하는 소설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국희, 『박경리 『토지』의 여성인물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
구논문, 2004.
- 김애리·박정열, 『성역할 관련 태도가 강간통념 수용에 미치는 영향』, 『기본
간호학회지』 제15권 제1호, 2008, 98-106면.
- 김은하, 『비밀과 거짓말, 폭로와 발설의 쾌락』, 『여성문학연구』 제26호, 2011,
299-330면.
- 방은주, 『박경리 장편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백옥경, 『조선시대의 여성폭력과 법 - 경상도 지역의 <검안>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9집, 2009, 93-126면.
- 신진옥,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사회』 제89호,
2011, 10-45면.
- 이 경, 『『토지』에 나타난 질병의 젠더화 연구』, 『현상과 인식』 제31권, 2007,
152-174면.
- 이 경, 『『토지』에 나타난 길과 집 사이의 여성서사』, 제1회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 자료집 『꿈꾸는 자가 창조한다: 박경리 문학 오십년의
재조명』, 토지문학관, 2010.
- 이 진, 『『토지』의 가족서사 연구』, 목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금란,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가족 이데올로기 연구』, 송실대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6.
- 이상진, 『탕녀의 운명과 저항: 박경리의 『성녀와 마녀』에 나타난 성 담론
수정양상 읽기』, 『여성문학연구』 제17호, 2007, 289-324면.
- 장필화, 『여성 체험의 공통성』, 『철학과현실』 제31호, 1996.
- 정미숙, 『박경리 애정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유형과 특성연구』, 호서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정혜경,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의 변모과정 연구』,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05.

채희윤, 『『토지』에 나타난 간통의 생태학』, 『현대문학』 1994.10.

최지선,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남성인물의 존재방식과 욕망 양상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다리우시 갈라신스키, 크리스 바커, 백선기 역, 『문화연구와 담론분석(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바바라 설리반, 『매춘을 다시 생각하기』, 칠라 불백, 이소영 역, 『행동하는 페미니즘 - 호주학 연구총서 2』 지구문화사, 2000.

바바라 크리드, 손희정 역, 『여성괴물: 억압과 위반 사이』, 여이연, 2008.

수잔 브라운밀러, 편집부 역,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1990.

엘리자베스 그로츠, 임옥희역, 『뢰비우스의 띠로서의 몸』, 여이연, 2001.

조르쥬 비가렐로, 이상해 역, 『강간의 역사』, 당대, 2002.

조세핀 도노번, 김익두·이월영 역, 『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3.

McKinnon, C., 『강간: 강요와 동의에 대하여』, 케티 콘보이·나디아 메디나·사라 스탠베리 편, 고경하 외 편역,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1.

Fairclough, N., *Language and Power*, 2/e, London: Longman, 2001.

Gibson-Graham, J. K., *The End of Capitalism (As We Knew It) (A Feminist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6.

Marcus, S., "Fighting bodies, fighting words: A theory and politics of rape prevention," in: J. Butler and J. W. Scott, ed.,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New York: Routledge, 1992.

Abstract

Various Faces of Rape in Park, Kyungri's 『Toji(the Land)』

Lee, Kyung

Rape is one of the most salient motifs in Park, Kyungri's roman-fleuve, 『Toji(The Land)』, which has rarely been analysed in depth, though. This paper tries to deal with every episodes of rape described in the 『Toji』 with focus on uncovering the partriarchal nature of rape, through which the long paths of establishment of women's subjectivity can be traced and reconstructed to make important opportunities to overcome the patriarchal ideology and dominance.

Rape is not stand-alone violence against women's body. According to the radical feminism, sexual violence and offence, bisexual love, and prostitution are located at the same continuum based on power structure of the society. Rape is not an exceptional, impetuous offence which threatens normality and orderliness of the society. It is nothing but the normality and orderliness itself. It is just one of the ways for the dominant narrative system to run, on which patriarchal powers, social institutions, gender, and nation-state can be constituted and maintained. Even though the male characters in the roman would discern rape from love, they only show that these two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at the cost of the female characters'sacrifices, they can achieve their own success and, sometimes, they can get significant opportunities for their solidarity with each other.

This paper applies the narrative strategy against rape script set by S. Marcus and Gibson-Graham to interpretation of the reaction patterns of the female characters who accept the rapes and tries to overcome their victimized situation. The female characters refuse to remain as victims of the rapes. They disobey the solemn imperatives of sexual impurity based on the patriarchal ideology, and challenge the gender control mechanism. Some of them try to negotiate with patriarchal system, some try to negate it, and some to overcome; most of them follow the way to subjectivity. They are so positive as to inscribe their desires into the raped bodies, and to re-constitute the situation and context from their own understandings, with which they can make some cracks and holes to the male dominant system, where the males can subjectify themselves by victimizing the females.

Key words: Rape, Rape Script, Rape Myth, Men's League(Männerbund),
Count-Narrative, Park Kyungri, Toji(the Land)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